



현대家 더비... 선두 경쟁 '분수령'

오늘 K리그1 선두 울산 - 2위 전북 세 번째 맞대결 감독 교체 최하위 서울은 11위 성남과 벼랑 끝 승부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울산 현대와 2위로 뒤를 쫓는 전북 현대가 시즌 세 번째 승부를 펼친다.

울산과 전북은 10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1 29라운드 맞대결을 치른다. 올 시즌 세 번째로 열리는 '현대가(家) 더비'다.

이 경기에서 승점 3을 어느 팀이 가져가는지에 따라 후반 K리그1 선두 경쟁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

울산은 현재 승점 54(15승 9무 3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북이 승점 50(14승 8무 5패)으로 뒤를 쫓고 있어, 승점 3을 쌓으면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1위를 지킬 수 있다.

반면 전북은 승점 차를 줄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울산에 패해 승점 차가 벌어질 경우 리그 후반기인 만큼 만화가 쉽지 않다.

올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는 울산이 1승 1무로 우세했다.

두 번째 만남이던 5월 19일에는 울산이 4-2로 이겼는데, 울산이 리그에서 전북을 상대로 승리한 건 2019년 5월 이후 2년 만이었다. 더불어 이날 승리로 울산은 전북을 끌어 내리고 선두를 탈환, 줄곧 순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현대가 더비'에서 자신감을 얻은 울산은 내친김에 전북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돌입한다. 울산은 최근 리그 7경기에서 무패(5승 2무) 행진을 달렸다. 8월에 치른 6경기에서는 모두 2골 이상씩을 기록, 총 14골을 몰아치며 화력을 자랑했다.

시즌 초반부터 공격을 책임진 이동준-이동경 듀오는 물론, 최근에는 바코와 이창용이 연이어 멀티 골을 터트리는 등 골 감각을 끌어 올렸다.

제대 후 복귀한 오세훈도 전방에서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전북도 물러설 생각은 없다. 정규리그 5연패를 위해서는 일단 눈앞의 울산부터 잡아야 한다.

지난달 6경기 무패(4승 2무)를 달린 전북은 이달 1일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0-1로 패했으나, 5일 FC서울을 4-3으로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3골을 내준 건 아쉽지만, 쿠니

모토와 일류첸코, 이승기, 홍정호 등이 고른 활약에 4골이나 터트렸다.

지난 울산전 때는 없었던 송민규와 김진수 등의 가세도 전북에는 큰 힘이 된다. 리그 중상위권 싸움도 계속된다.

3위 포항(승점 39)과 5위 대구FC(승점 38·31득점)는 10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맞붙는다. 두 팀의 승점 차는 단 1점이다.

4위 수원FC(승점 38·39득점)도 12일 10위 강원FC(승점 27·26득점)를 상대로 승점 획득을 노린다.

최하위 서울(승점 25)은 11위 성남FC(승점 27·22득점)와 벼랑 끝 승부를 펼친다.

서울은 지난해 12월부터 팀을 이끈 박진섭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후임 안익수 감독 체제로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8일 열린 2022년 FIFA 월드컵 예선 C조 이탈리아와 리투아니아의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자코모 라스파도리(왼쪽)가 리투아니아의 리나스 클리마비시우스와 볼 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죽지세' 이탈리아 지는 법 없었다

A매치 37경기 무패 신기록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이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37경기 연속 무패 대기록을 이어갔다.

이탈리아는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레조 에밀리아의 마페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투아니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 C조 6차전에서 5-0 대승을 따냈다.

지난 6일 스위스와 C조 5차전에서 0-0으로 비기면서 스페인과 브라질이 보유했던 기존 역대 A매치 무패 기록을 넘어섰던 이탈리아는 이날 승리로 A매치 37경기(28승 9무)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

이탈리아는 C조에서 4승 2무(승점 14)를 기록하며 2경기를 덜 치른 2위 스위스(승점 8)와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전반 11분 만에 모이스 킨의 선제 결승골이 터진 이탈리아는 전반 14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때린 지아코모 라스파도리의 왼발슛이 리투아니아 수비수 에드가라스 우트쿠스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추가골이 됐다. 득점은 우트쿠스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라스파도리는 전반 24분 골지역 정면에서 수비수가 밀어낸 볼을 넘어지며 밀어넣어 빼기골을 작성했다.

이탈리아는 전반 29분 킨이 골지역 왼쪽에서 왼발슛으로 자신의 멀티골이자 팀의 4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전반을 4-0으로 마무리했다.

이탈리아는 후반 9분 조반니 디 로렌조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로빙슛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5-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KBL 컵대회 내일 개막 외국인 선수-이적생 기대

2021 MG 새마을금고 KBL 컵대회가 11일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개막, 18일 까지 열전예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10월 9일 2021-2022시즌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5월 초 안양 KGC인삼공사의 우승으로 2020-2021시즌이 끝난 뒤 4개월 만에 열리는 프로농구 경기로 팬들의 '농구 갈증'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프로 10개 팀 가운데 서울 삼성은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이번 대회에 나오지 못한다.

프로 9개 구단과 상무까지 10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외국인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 및 입국이 늦어진 일부 팀들은 이번 대회를 국내 선수들 로만 치르는 경우도 있다.

A조에 전주 KCC와 창원 LG, 서울 SK가 편성됐고 B조에 인삼공사와 수원 kt, 고양 오리온이 들어갔다.

C조는 상무와 한국가스공사, 원주 DB가 경쟁하며 D조는 울산 현대모비

스와 삼성으로 짜였는데 삼성이 불참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자동으로 4강에 올라갔다.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가 첫선을 보이고, 부산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긴 kt도 새 등지인 수원에서 치르는 경기는 아니지만 연고지 이전 후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나선다.

전회철 신임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SK가 어떤 팀 컬러를 보여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요 이적생들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다.

2020-2021시즌 인삼공사를 정상에 올려놓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LG로 이적한 가드 이재도를 비롯해 두경민(DB→한국가스공사), 허일영(오리온→SK), 김동욱(삼성→kt), 전준범(현대모비스→KCC) 등이 새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 등장한다.

현대모비스에서 지난해 은퇴한 양동근은 코치로 벤치를 지킨다.

첫날인 11일에는 오후 2시 KCC와 LG가 첫 경기를 치르고 오후 4시 상무와 한국가스공사 경기가 이어진다.

이상운 SPOTV 해설위원은 "외국인 선수 출전 여부와 주전 선수들의 부상 등의 변수 때문에 팀간 전력 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며 "최근 연습 경기 흐름 등을 보면 kt와 한국가스공사, SK 등의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그랜드슬램을 향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2021 US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마테오 베레티니의 공을 받아내고 있다. 이날 조코비치는 베레티니에게 세트 스코어 3-1(6-7, 6-2, 6-2, 6-3)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추격자' 토론토 거침없는 7연승

AL 와일드 카드 경쟁 혼돈

'추격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거침없이 7연승을 질주하고 미국프로야구(MLB)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 경쟁을 혼돈으로 몰고갔다.

토론토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를 6-3으로 눌렀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9월 들어 7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토론토는 10일에도 이기면 양키스와의 주중 4연전을 싸울 예정이다.

AL 와일드카드 3위 토론토와 2위 양키스의 승차는 1.5경기로 줄었다. 1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격차도 2경

기에 불과하다. 토론토가 매서운 뒷심으로 양키스를 뿌리쳤다.

토론토는 4회 양키스 투수의 폭투 없이 7연승을 질주하고 미국프로야구(MLB)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 경쟁을 혼돈으로 몰고갔다.

토론토는 7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적시타로 다시 1점을 앞서고 8회에는 로우르테스 구리엘 주니어의 3루타에 이어 제이크 램의 희생플라이로 5-3으로 점수를 벌였다.

토론토 주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9회초 승리를 확정하는 좌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람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